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 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11/14℃ 목포 10/14℃ 여수 9/14℃
단기 4343년 (음력 2월 1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37호 1판 2010년 3월 31일 수요일

선체 진입 실패…닷새가 지났다

천안함 구조작업 UDT 대원 1명 사망

이대통령 백령도 방문

서해 백령도 해상에 침몰한 천안함의 실종자 구조작업에 투입된 해군 특수전(UDT) 소속 잠수사 1명이 30일 순직했다. 군은 이날 오전과 오후 수차례 수중에서 천안함의 실종자 구조작업을 진행, 함미와 함수 부분에 밧줄을 연결했지만 선체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실종자 구조작업에 상당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3·4·6면〉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2시부터 시작된 침몰함 실종자 구조활동이 수차례 수중 작업에도 진전이 없었다"면서 "물살이 흐름이 잠잠해지는 정조 시간이 있지만 정조와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각오로 야간에도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함수 쪽 작업 도중 해군 특수전(UDT)잠수요원 한 모(53) 준위가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구조작업이 일단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한 준위는 작업 후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미군 함정 '살보함'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순직했다. 해난구조대(SSU) 소속 잠수사 1명도 실신해 치료를 받았다.

그간 구조작업을 통해 함수 쪽은 출입문이 개척됐고 함미 쪽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간 상황이다. 절단면을 수중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으로 침목 원인추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파손 부위를 모두 다 봐야 한다. 인양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원인규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이 준장은 설명했다.

군은 선체 진입 통로 확보작업을 병행해 함수와 함미 부분에 있을지 모를 생존자들의 호흡을 돕기 위해 공기를 계속 넣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김병기 국방비서관 등을 대동하고 침몰 현장인 백령도를 전격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중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독도함에 내려 해군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독도함에서 2.7 Km 거리에 있는 광양함에 도착, 구조상황을 지켜보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미에 46명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먼저 구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급하게 그 일을 해야 하니 미군측과 협의해서 사람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천안함이 사고해상으로 항로를 변경한 의혹과 관련, 장수만 국방차관과 김중련 합참차장,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은 국회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해 "그 항로는 작년 대청해전 이후에 북한이 계속해 보복을 경고해왔기 때문에 안전 확보 차원에서 백령도 아래쪽 항로를 이용해왔고, 그전에도 파고가 높으면 통상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F1·광엑스포 성공개최 '고민'

'천안함 참사'에 분위기 살리기 비상

천안함 침몰 참사 여파로 국민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영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광주세계광엑스포 성공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F1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회운영법인 KAVO에 따르면, 입장권 첫 판매를 기념하고 붐을 조성하기 위해 3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티켓 발매 행사인 '그랜드 오픈 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으나 천안함 침몰에 따른 국민 정서를 고려해 행사를 조정·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AVO는 대회 티켓 가격을 최초로 공개하고 온라인 판매에 들어가는 것을 알리는 행사인 만큼 글로벌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하고 영암의 경기장을 연결해 현지 준비 상황을 공개하는 한편 인기스타들의 축하공연과 기업 홍보 관계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했었다.

그러나 전남도내 자치단체들이 이순신광장 시민나들이 축제, 영취산진달래축제, 목포요트마리나 개장식 등을 잇달아 축소·연기하고 방송사도 예능 프로그램 방영을 취소하는 등 사회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가라앉으면서 대회 관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F1 대회조직위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축제로 치러져야 할 행사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며 "국민 정서를 감안, 행사를 조정·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2일 개막하는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도 천안함 참사 불똥이 튀지 않을까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광엑스포 사무처는 개막 3일을 앞두고 개막식 최종 리허설을 준비하고, 광주·전남 및 타지 학교나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막바지 입장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최근 광엑스포 붐이 형성되면서 개막일까지 입장권 예매 목표인 45만매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왔다"면서 "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가라앉고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행안부 장관 맹형규 靑 경제수석 최중경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맹형규 대통령 정무특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중경 주필리핀대사를 내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프로필 4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맹 장관 내정자의 경우 부드러우면서도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 행안부의 각종 현안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최 수석 내정자는 국제적 감각과 상황판단 능력이 뛰어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글로벌 공조와 정부내 경제부처간 협조체제 강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